

한자어제 귀화어의 유형 연구

조현용
(경희대학교)

Cho, Hyun Yong. 2009. Study on Types of Borrowed Words Derived from Chinese Characters. *Linguistic Research* 26(2), 85-99. This study examines borrowed words from Chinese characters. The causes of borrowed words are compounding, synonym duplication, grammaticalization, changes in phonemes and forms and a lack of awareness of etymology. For instance, compounding of Chinese character words with Korean and fusing of similar meanings of Korean words to Chinese characters lead to less awareness and usage. Looking at those two instances from the compound word category, they are both borrowed words. In grammaticalization, the changes in meaning and function go together. Therefore, the actual root meanings weaken in the process. Chinese characters are often used as dependent nouns in the Korean language and, in that process, become borrowed words. Changes within phonemes and forms also create problems to understand the etymology of the borrowed words, not to mention the many vocabulary words too difficult to trace their roots. In such instances, such words fall in the category of borrowed words. (Kyung Hee University)

Key words chinese character, borrowed word, compound word, synonym duplication, etymology, grammaticalization, teaching vocabulary

1. 연구목적

한국어에서 한자를 비롯해 서양어, 일본어 등의 차용어가 들어 있지 않은 어휘를 우리는 순우리말이라고 한다. 하지만 보통 순우리말이라고 하면 한자어가 아니라는 의미가 강하다. 한자어의 홍수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어휘를 순우리말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알타이 어족이니, 고(古)아시아 어족이니 할 때, 모든 어휘들이 순수하게 우리말로 발전되어 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도 많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순우리말로 다루어야 할지 애매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¹⁾

한자로만 이루어진 어휘의 경우는 비교적 뚜렷하게 한자어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한자 어휘는 한자어로 인식하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말과 한자어의 동의중첩(同義重疊)으로 이루어진 어휘의 경우는 한자가 담겨있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우리말과 합성된 한자어의 경우도 한자가 담겨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

1) 본 연구의 불분명한 어원 재구나 유형 분류에 대하여 지적하고, 수정 의견을 주신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원 재구의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된 자료로 논증을 보완하도록 하겠다.

우가 많다. 한자의 발음이 달라져서 변화하여 온 어휘의 경우에는 어원에 대한 의식이 없어져 한자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²⁾ 이렇게 언중들이 한자어를 우리말 어휘로 인식하게 되는 것을 귀화어라고 한다.³⁾ 귀화어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차용어, 외래어의 정의와 함께 논의하여야 한다. 이덕호(1980:255)에서는 외래어와 차용어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우리말로 동화 여부의 차이를 들고 있다. 즉 차용어는 우리말로 동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 조세용(1991:46)에서는 고유어가 아닌 어휘를 차용어로 보고, 우리말로 동화된 어휘를 귀화어로 보고 있다. 하지만 외래어를 차용어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은 용어의 혼동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차용어의 개념을 상위에 두고 외래어와 귀화어로 나누는 방식을 택하도록 하겠다.⁴⁾

국어교육에서 국어순화운동을 하면서, 순우리말을 사용하자고 하는 경우에 ‘순(純)’이 한자라는 사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언어에서 순수함을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한자가 폭넓게 우리말 속에 들어와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말의 기초어휘에는 순우리말이 많이 남아있다고 한다. 신체 어휘 속에도 남아있고, 자연 어휘, 친족 어휘 속에도 남아 있다. 신체 어휘를 살펴보면 ‘머리, 허리, 다리’에서 ‘눈, 코, 입’까지 순우리말이 많다. 자연 어휘에도 ‘하늘, 땅, 바다, 별, 해, 달’부터 ‘눈, 비, 빗’까지 순우리말이 많다. 친족 어휘에도 순우리말은 많이 남아 있다. ‘아버지, 어머니’부터 ‘아들, 딸, 오빠, 누나’까지 순우리말은 생명력 있게 남아 있다. 하지만 대표적인 기초어휘 중에도 ‘산(山), 강(江), 형(兄), 부모(父母), 동생(同生), 삼촌(三寸) 등 한자어로 바뀐 어휘들도 많다.⁵⁾ 이는 한자어가 우리말의 기초어휘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⁶⁾

본 연구에서는 한자어가 우리말 어휘 형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로 한국어 어휘 형성에서 한자어가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한자어가 한국어 어휘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이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한자어가 어떻게 귀화어로 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살펴보고, 한국어의 어휘 형성 방법을 중심으로 귀화어의 유형을 분류해 보도록 하겠다.

2) 이와는 반대로 한자어가 아님에도 견강부회(牽強附會)하여 한자어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울> 우뢰(雨雷) 같은 예이다.

3) ‘뽕’이나 ‘담배’, ‘남꽃불’ 등을 순우리말로 인식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외래어를 순우리말로 인식하게 된 것을 귀화어라고 한다. 본고에서는 한자어가 귀화어가 되는 현상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4) 외래어와 귀화어의 차이를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로 구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귀화’라는 용어도 언어학적인 용어로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성환갑(1987:41)은 고유어의 한자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국어의 어휘 체계에서 한자어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까닭으로는 흔히 ① 문화적 우열 문제 ② 국어 어휘의 배의적 특질 ③ 한자어 자체가 지닌 형태적 조건 등이 지적되곤 하지만, 이는 한국 문화의 전통과 역사에서 유래한 필연적인 결과일 뿐, 결정적인 어느 하나의 이유를 찾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6) 김종택(1993: 81-88)은 15세기 국어의 경우에는 한자어가 당시의 국어 어휘 체계 속에 완전히 정착하여 일반에게 쉽게 통용된 예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또한 국어 어휘 중 5% 정도만이 15세기에 한자어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는 귀화 과정이 오랜 시간 자연스럽게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동시에 귀화어가 최근의 현상임을 보여주기도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의 주제에 해당하는 연구로는 ‘귀화어에 대한 연구, ‘한자어의 어휘 형성에 관한 연구, 동의중첩에 관한 연구, 문법화에 관한 연구, 어원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주제들은 귀화어 자체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고, 어휘 형성 방법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다.

성환갑(1987)에서는 고유어가 한자화하는 과정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직접 귀화어와는 관련이 없지만, 고유어가 한자어화하는 예 중에는 한자어라는 인식이 적어진 예들을 발견할 수 있다. 강헌규(1988)에서는 한국어 어원의 연구사에 대해서 폭넓게 다루고 있다. 어원에 관한 과거의 논의들을 담고 있어서 우리말 어휘의 어원을 한자와 결부시킨 예들을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다. 귀화어에 대한 어원적인 접근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심재기(1987)에서는 한자어의 구조와 조어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귀화어 자체에 관한 연구라기 보다는 우리말 속의 한자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된다. 한자의 조어력 때문에 우리말이 한자로 대체된 예들이 많아지게 된 것이다.

동의중첩에 관한 논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류구상(1970)에서는 동의 중첩에 의한 어휘 형성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서정범(1989)에서는 동의중첩이 우리말 어휘 형성의 일반적인 원리였음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외래적인 요소와 우리말 간의 동의중첩이 신어 형성 및 의미 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한자어와 우리말의 동의중첩에 의한 귀화어 현상에 근거가 되는 논의라고 할 수 있다. 김종택(1993)에서는 동의중첩에 의한 단어형성에 관한 논의 및 어원적인 접근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자어와 우리말의 동의중첩에 의한 귀화어 현상을 볼 수 있는 논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심재기(1994)에서는 복합어를 형성할 때, 순우리말과 한자어의 복합으로 이루어진 어휘들이 많음을 지적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부분의 어휘가 순우리말로 인식되는 어휘여서 귀화어와의 관련성을 살펴 볼 수 있다. 조현용(1996)에서는 동의중첩에 의한 단어 형성에 대하여 논하고 있어서 한자어와 우리말 간의 합성어에 대해서 살펴 볼 수 있다. 박재양(2006)에서는 한자어와 우리말의 동의 중첩 현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심재기(1994)의 논의에 없는 어휘들이 추가되고 있어서 연구 자료의 확대에 도움이 된다.

차용에 관한 논의로는 이덕호(1980), 이용주(1969) 등을 들 수 있다. 본격적으로 귀화어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는 박은용(1970), 남풍현(1972), 최범훈(1973) 등을 들 수 있고, 조세용(1985, 1986, 1999)에서 귀화어에 관한 자세한 논의를 볼 수 있다. 조세용(1986)에서는 귀화어와 차용어, 외래어의 정의에 대해서 구분을 시도하여 외래어와 귀화어를 차용어의 종개념어로 보고 있다. 귀화어는 유래에 따라 구분하고, 한자어계는 다시 한자 의식 정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한자어계 귀화어의 형성에 대해서는 혼종어적 귀화어, 비혼종어적 귀화어로 나누고 있는데, 형태와 음운적인 것에 초점이 맞추어 있어서 어휘 형성의 원리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한자어 유래 귀화어에 대해서 다양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귀화어의 형성 원인에 대해서는 어휘 형성 원리에 비추어 재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3. 한자 유래 귀화어의 형성

본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한자는 일반적으로 한자어로 인식하지 못하는 예들이다.⁷⁾ 이러한 예를 귀화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자어로만 이루어진 어휘뿐만 아니라 우리말과 결합한 한자어까지 귀화어의 범주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는 한자어가 폭넓게 우리말 어휘 형성에 관여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귀화어의 형성을 한국어 어휘 형성원리에 비추어 ‘우리말과 한자어의 복합에 의한 단어형성, 우리말과 한자어의 동의중첩에 의한 단어형성, 한자어의 문법화, 음운변화에 의한 한자어의 귀화어화, 어원의식 결여에 따른 귀화어’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하겠다.⁸⁾

3.1 순우리말과의 복합과 귀화

한자어가 한자어 어휘의 복합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모국어 화자들은 일반적으로 한자어 어휘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한자어가 일부 포함된 복합어의 경우에는 한자어 의식이 희박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순우리말이라는 인식이 생겨서 귀화어가 되는 것이다. 성환갑(1987 : 41-49)에서는 고유어가 한자화하는 과정을 1) 형태상 원인 2) 의미상 원인 3) 활용상의 요인 4) 사회 심리적 요인으로 나누고, 형태상 원인으로는 ‘언어경제 욕구, 안정성 추구, 동음충돌 회피’, 의미상의 원인으로는 ‘의미영역의 분화, 의미의 확대’, 활용상의 요인은 ‘한자어의 조어력 활용, 한자어소의 감염’, 사회 심리적 요인은 ‘문화의 우열, 완곡 표현, 심리적 동기’ 등을 들고 있다.

이 중에서 한자어소의 감염은 귀화어의 중간 모습을 볼 수 있다. 한자어소의 감염은 한자어와 우리말이 복합을 이룬 경우에 한자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말도 한자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⁹⁾ 즉, 한자어와 고유어의 복합이 한자어로 감염되면 한자어화하지만, 감염되지 않으면, 한자어라는 의식이 떨어져서 귀화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일반 언중의 경우에 검지, 중지, 약지의 경우에서 ‘지’는 손가락의 의미인 ‘指’

7) 귀화어 판정 기준으로 언중의 한자어 인식 여부를 들고 있는데, 이는 언중에 따라 귀화어의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도 보여주는 것이다.

8) 심사위원의 지적대로 본 유형 분류는 귀납적인 방식은 아니다. 귀화어 자료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한국어의 주요 어휘 형성 원리를 귀화어 형성에 적용하여 본 것이다. 향후 귀화어 자료의 분석을 통해 보다 세밀한 유형 분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심사위원의 지적처럼 ‘순우리말과의 복합’이라는 유형의 하위분류에 ‘동의중첩이나’ 어원의식의 결여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어휘 형성의 원리를 주로 기준으로 삼았으나, 단어 구조를 감안하여 분류의 층위를 나눌 필요도 있다고 본다.

9) 낮후가 오후(午後)로, 바람병이 풍병(風病)으로, 본집이 본가(本家)로, 본돈이 본전(本錢)으로 바뀌었다.

로 인식하지만, 엄지의 경우에는 ‘엄 + 지(指)’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엄지를 엄지손가락으로 동의중첩하여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¹⁰⁾ ‘까지를 끼다’의 까지도 ‘엄지’에서처럼 ‘지(指)’가 합성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가락지의 경우에도 ‘지(指)’가 복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손가락을 나타내는 ‘가락’과 한자어 ‘指’가 동의중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모국어 화자가 한자어로 인식하지 못하는 복합어의 요소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¹⁾

- **뒤태** : ‘뒤태가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때 ‘태(態)’는 모양을 의미한다. 옷이 모양이 살지 않는다고 표현할 때, ‘태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態’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복받치다** : ‘복받치다’의 고어는 ‘애와티다’이다. ‘애와티다’의 ‘애’는 창자의 순우리말이다. ‘복받치다’의 ‘복’은 ‘복(腹)’ 즉, 배, 창자의 의미로 한자어로 볼 수 있다.

- **본보기** : ‘본(本) + 보기’의 구조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견본(見本)’을 풀어쓴 단어라고 할 것이다. 견본(見本)의 본(本)은 원래 책의 의미이다. ‘본’은 한자라고 할 수 있다.

- **비웃음** : 비웃음의 ‘비’를 한자어일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코웃음’과 비교해 보면 ‘비웃음’을 ‘비(鼻) + 웃음’의 구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코 + 웃음’과 동의어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코’를 한자어 ‘비(鼻)’로 교체한 것이다.¹²⁾

- **양갸움** : 양갸움은 ‘양심(快心)’을 갸운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양(快) + 갸움’의 구조로 되어 있는 어휘라고 할 수 있다. ‘양갸다’라는 형태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이성이 있는 어휘라 할 수 있다. 양심(快心), 양숙(快宿)이라는 단어와 관련된다. ‘양금이 남아있다’고 할 때, ‘양’도 한자로 볼 수 있다.

- **온돌** : 온돌은 대표적인 우리 문화 요소이다. 하지만 어휘의 구조는 ‘온(溫) + 돌’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즉, 돌을 따뜻하게 하는 난방 체계라는 의미가 된다.

- **자네** : 자네는 ‘자(自) + 네’의 구조로 되어 있는 단어로 볼 수 있다. ‘-네’는 ‘아낙네, 여인네’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을 나타내는 접미사라고 할 수 있다. ‘자’는 ‘자기(自己)’에

10) 言衆들이 ‘검지손가락’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類推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약지손가락이나 중지손가락이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

11) 본 연구에서 특별히 참고문헌을 언급하지 않은 어휘 자료는 필자의 의견임을 밝혀둔다.

12) ‘비웃다’라는 어휘는 사용하는데, ‘코웃다’라는 어휘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웃다’가 세력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처럼 ‘自’로 볼 수 있다. 스스로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3인칭을 지칭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자기(自己)’의 경우도 3인칭을 지칭할 때 사용할 수 있다.¹³⁾

· **장마** : 장마는 ‘장 + 마’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마’는 ‘마파람’ 등에서 사용되는 단어로 ‘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동원어로는 ‘물(水), 못(淵), 말다, 미’ 등이 있다. ‘물’과 ‘말다’는 명사의 동사 파생으로 볼 수 있다.¹⁴⁾ ‘미’는 ‘미나리, 미꾸리(미꾸라지), 미더덕’ 등에서 물의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장마는 비가 계속 오는 기간 즉, ‘긴물’이라는 뜻으로 ‘장(長) + 마(물)’의 구조라고 볼 수 있다.

· **젓가락** : 젓가락은 ‘저(箸) + 가락’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숟가락은 ‘술 + 가락’으로 이루어진 단어로 순우리말 합성으로 볼 수 있다. 수저는 ‘시저(匙箸)’가 변한 말로 보기도 하나 ‘술 + 저’의 합성어로 볼 가능성도 있다.

· **토박이** : 토박이는 ‘토(土) + 박이’의 구조로 볼 수 있다. ‘-박이’는 외눈박이, 외톨박이의 ‘박이’, 장돌뱅이, 앓은뱅이의 ‘-뱅이’, 절름발이, 비바리(처녀, 제주방언), 냉바리(과부, 제주방언)의 ‘-발이’ 등과 어원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칭 접미사로 볼 수가 있다.

· **뺨마루** : 뺨마루는 ‘뺨(退) + 마루’의 구조이다. ‘뺨(退)’의 의미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한자어로 연계시키기가 쉽지 않은 어휘이다.

· **헛소리** : 헛소리는 ‘헛(虛) + 소리’의 구조에 사이시옷이 첨가된 형태이다. 헛말, 헛발, 헛걸음, 헛손질, 헛짓, 허투루¹⁵⁾ 등에 접두사로 폭넓게 쓰이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잘못’의 의미를 더해 준다.

이상의 예와 같이 한자어는 복합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실제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자가 부분적으로 결합하고 있으나 언중이 인식하지 못하는 귀화어라고 볼 수 있다. 위의 예를 바탕으로 추론해 본다면, 우리가 추측하는 것보다 한자어가 한국어의 복합어에 훨씬 다양한 모습으로 결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2 동의중첩과 귀화

동의중첩은 같은 의미의 어휘가 반복되어 어휘를 형성하는 것이다. 동의중첩은 기존의 어

13) ‘자랑’의 경우도 ‘自’를 한자로 볼 수 있다. 자랑은 자(自) + 랑(浪)(삼가지 아니하다)의 구조로 볼 수 있다.

14) 서정범(1989)에서는 명사에서 용언으로 단어가 형성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15) ‘허투루’의 경우는 ‘헛으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헛’이 접두사화하고 여기에 다시 조사가 첨가된 형태일 것이다. ‘허투루 듣지 마라’는 표현은 ‘헛’과 의미적 관련성이 있다.

회를 새로운 어휘로 보완하거나, 새로운 어휘의 의미를 기존의 의미로 추가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순우리말과 한자어의 중요한 합성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의 ‘역전(前) 앞, 동해(海) 바다’의 경우는 한자어를 우리말로 부연 설명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깡(can)통’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의중첩은 현대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단어 형성 방법이다. 한자어와의 합성에서 주목되는 것은 한자어로 인식하지 못하는 동의중첩의 예이다. 한자어와 우리말의 동의중첩에 의한 단어형성에 대한 논의로는 심재기(1994), 조현용(1996), 박재양(2006) 등이 있다. 심재기에서 제시된 예와 박재양에서 추가적으로 제시된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심재기(1994)>

굳건하다 : 굳다 + 건(健)
 글자 : 글 + 자(字)
 널판 : 널 + 판(版)
 농익다 : 농(濃) + 익다
 마땅하다 : 맞다 + 당(當)
 말쑥하다 : 맑다 + 숙(淑)
 몸체 : 몸 + 체(體)
 바람벽 : 바람 + 벽(壁)
 뼈골 : 뼈 + 골(骨)
 속내 : 속 + 내(內)
 애간장 : 애 + 간장(肝臟)
 애초 : 애 + 초(初)
 얇팍하다 : 얇다 + 박(薄)
 언덕 : 언(堰) + 덕
 연못 : 연(淵) + 못
 온전하다 : 온 + 전(全)
 옷칠 : 옷 + 칠(漆)
 익숙하다 : 익다 + 숙(熟)
 족발 : 족(足) + 발
 터전 : 터 + 전(田)
 튼실하다 : 튼튼하다 + 실(實)
 회돌다 : 회(回) + 돌다

<박재양(2006)>

개천 : 개 + 천(川)

늘상 : 늘 + 상(常)

신새벽 : 신(晨) + 새벽

예전 : 예 + 전(前)

용솟다 : 용(湧) + 솟다

휘감다 : 휘(揮) + 감다

휘두르다 : 휘(揮) + 두르다

이상의 예를 보면 한자의 훈(訓)을 다는 뜻풀이 구조로 되어 있는 어휘가 많아서 주목된다.

예) 몸체, 속내, 뺨골, 늘상, 바람벽 등

또한 뜻풀이 구조로 보이나 비통사적(非統辭的)으로 합성된 예들도 나타난다.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이 어미 없이 합성된 형태이다.

예) 굳건하다, 마땅하다, 말쑥하다, 알뜰하다, 익숙하다, 튼실하다 등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은 어휘들은 우리말과 漢字語의 同義重疊에 의해서 형성된 단어로 보인다.

싹수 : 싹 + 수(穗)

접붙이다 : 접(接) + 붙이다

착실하다 : 착하다 + 실(實)

‘싹수’는 한자어의 훈 달기 방식이 하나의 단어로 변화한 예로 보인다. ‘싹수’에서 수(穗)는 이삭의 의미를 갖고 있다. ‘싹이 노랗다’와 ‘싹수가 노랗다’에서 ‘싹’과 ‘싹수’는 동의어로 사용되는데, 동의중첩에 의해서 형성된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착실하다’의 경우는 ‘튼실하다’와 유사하게 합성된 어휘로 볼 수 있다.

한자어와 우리말의 동의중첩에 의한 단어 형성은 매우 광범위한 현상으로 보인다. 한자어의 의미를 우리말로 보완하려는 의식이 강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더해진다면 더 많은 동의중첩 어휘가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순우리말이라고 생각하는 단어가 한자어와 합성된 예임을 알게 되는 경우도 동의중첩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자어가 우리말 어휘와 동의중첩 하여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경우가 귀화어의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3.3 문법화와 귀화

한자어가 의존명사화 하는 경우에 의미변화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한자어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말 어휘의 경우에도 문법화하면 원 의미와의 유연성이 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조사 ‘-조차’의 경우 ‘좃다’와의 유연성을 일반 언중들이 인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의존명사는 문법화와 관련을 맺는 경우가 많다.¹⁶⁾ 실질명사에서 문법적 기능만 하는 문법 요소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의존명사 중에는 한자어의 의미가 그대로 의존명사의 의미와 연계되는 것이 나타나서 주목된다.¹⁷⁾ 다음의 예는 비교적 한자어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예이다.

겸 : -을 겸(兼)
 인 : -로 인하여(因)
 편 : -는 편이다(偏)
 한 : -는 한(限)

이상의 예는 ‘겸하다, 원인, 편, 한계’ 등의 의미가 남아있어서 한자어가 기원임을 비교적 쉽게 추론할 수 있으나, 모국어 화자는 한자어가 의존명사화 하여 관련성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음의 예는 원래 의미와 의미적 연관성이 떨어져서 모국어 화자는 한자어로 생각하지 않게 된다.

고사 : -는 고사하고(固辭)
 모양 : -는 모양이다.(模樣)
 리 : -을 리 없다(理)
 법 : -는 법이다, -을 법하다(法)
 수 : 할 수 없다(手) 별수 없다
 십상 : -기 십상이다.(十常)
 체 : -는 체하다(體)
 축 : -는 축에 들다(軸)

‘리, 수’ 등은 우리말의 대표적인 의존명사이다. 이러한 의존명사가 한자에서 기원하였다는 사실은 한자어의 영향력이 매우 포괄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리’는 ‘이유(理由)’와 ‘수’는 ‘수단(手段)’과 관련되어 있음을 교육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법의 경우는 ‘법이다’에는 한자어 ‘법(法)’과 연관성이 남아있으나 ‘법하다’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련성이 더 적다. 이는 한자어가 의

16) 안주호(1996)에서는 의존명사화를 비롯한 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현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17) 조현용(2005)에서는 한자어에서 기원한 의존명사에 대해서 밝히고, 교육 방안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존명사화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십상이다’의 경우는 십상팔구(十常八九)의 십상이 의존명사화 한 것이다. 하지만 언중들은 ‘쉽다’와 연관성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자어와의 관련성은 거의 모국어화자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자어가 문법화, 의존명사화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한자어가 귀화어가 되는 모습의 예를 더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3.4 음운변화와 귀화

한자어가 음운변화에 의해서 한자어인지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음운 변화에 의한 귀화어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붓’을 들 수 있다. ‘붓’은 한자어 필(筆)에서 온 말로 ‘필(筆)’의 고대 발음이 ‘붓’에 가까웠는데, 지금은 한자어 발음이 ‘필’로 바뀌어 ‘붓’이 한자어인지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음운의 변화로 한자어 기원인지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귀화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연구자들이 한자어 기원으로 파악하고 있는 어휘들은 다음과 같다.¹⁸⁾

- 가지 : 가자(茄子)에서 온 말
- 고추 : 고초(苦草)에서 온 말
- 김치 : 침채(沈菜)로 담가먹는 채소라는 의미
- 동치미 : 동침(冬沈) 겨울에 가라앉혀 먹는 채소.
- 무늬 : 문(紋)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배추 : 백채(白菜)에서 온 말.
- 산냥 : 산행(山行)에서 온 말.
- 사랑 : 사랑(思量)에서 온 말.
- 상추 : 생채(生菜)에서 온 말
- 서랍 : 설합(舌盒)에서 온 말
- 싱싱하다 : ‘생생(生生)하다’가 모음교체한 말
- 쌩쌩하다 : ‘생생(生生)하다’가 자음교체한 말
- 설매 : 설마(雪馬)에서 온 말¹⁹⁾
- 얌체 : 염치(廉恥)에서 온 말
- 잠깐 : 잠간(暫間)이 변한 말, 잠시(暫時)

18) 한자어와 우리말의 관련성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한자에 건강부회하게 되는 예들도 많다. 예를 들어 1780년대 황윤석의 <華音方言字義解>에 보면 ‘가다’는 ‘去’에서, 봄은 ‘本’에서, 겨울(겨울)은 ‘居室’, 거북은 ‘龜卜’에서 유래하였다고 보는 것이다.(강현규(1988) 참조)

19) 설매는 ‘설 ㅅ 다(꺾다) + 매(나무)’의 구조로 볼 수도 있다. ‘떡매, 매(회초리)’ 등에서 나무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장난 : 작난(作亂)에서 온 말
 재미 : 자미(滋味)에서 온 말
 쟁기 : 장기(仗器)에서 온 말
 조카 : 족하(族下)에서 온 말

‘동치미’나 ‘무늬’는 ‘동침, 문’에 접미사가 덧붙은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파리를 나타내는 ‘꿀’이 ‘포리’의 형태로 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형태가 첨가되어 한자와의 연관성이 떨어진 것이다. 김치의 경우는 구개음화 한 것이다. 재미는 자미(滋味)에서 온 말로 ‘ㅣ 모음 역행동화’ 한 것이다. 쟁기도 장기(仗器)에서 온 말로 ‘ㅣ 모음 역행동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산행>사냥, 설합>서랍, 족하>조카 등은 /ㅎ/의 음가와 관련이 있다. 이 밖에도 자음동화 한 ‘작난>장난’, 경음화된 ‘잠간>잠깐’ 등 다양한 음운 현상에 의해서 한자어 원래의 형태와 떨어져 한자어라는 의식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생생하다가 ‘싱싱하다, 썩썩하다’로 변한 예는 모음교체, 자음교체에 의한 신어 형성이라는 점 외에도 한자어와 외태어의 관련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²⁰⁾ 어휘의 음운이나 형태가 변화하는 것은 모국어 화자가 어휘의 기원을 파악하는 데, 난점이 된다. 따라서 음운이나 형태가 변화한 한자어 어휘는 우리말에 귀화하게 되는 것이다.

3.5 어원 의식 결여와 귀화

한자어의 원래 의미가 사라져서 어원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한자라는 의식도 사라지게 된다.²¹⁾ 이는 한자어가 귀화어가 되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아찌’의 경우에 ‘장(醬)’이라는 어휘가 포함되어 있지만 형태가 변화하여 어원 의식이 떨어지게 된 것이다. ‘장아찌’는 중세국어에서 ‘장엿디히’로 나타나는데, 이는 ‘장(醬)’에 담긴 ‘디히(김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엿디히’라고 할 때는 ‘장’의 의미가 분명한데, 장아찌라고 할 때는 어원에 대한 의식이 없어서 한자어라는 의식도 약해지게 된 것이다. 장아찌로 되면서 귀화어가 된 것이다. 귀화어로 볼 수 있는 예들을 몇 가지 살펴해보도록 하겠다.²²⁾

· **괴롭다** : ‘고(苦)롭다’에서 온 말이다. ‘이(利)롭다, 해(害)롭다’와 연관 지어 살펴볼 수 있다. ‘고(苦)’가 ‘괴’로 변화하여 어원의식이 약해진 예이다. ‘괴롭히다’와 같이 사동형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더욱 어원의식이 약해질 수 있다. 어근이 1음절 한자어인 경우에 어원의식이

20) ‘발을 동동 구르다’에서 ‘동동’은 한자어 ‘동(動)’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고려가요에서도 ‘동동’을 ‘動動’으로 표기하고 있다. 또한 심재기(1994)에서는 붉으죽죽하다, 푸르청청하다의 ‘죽(赤), 청(靑)’이 한자어라고 보고 있다. 색채어의 예이기는 하지만 첩어라는 점에서 외태어와 관련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21) 어원 의식 결여에는 앞에서 언급한 음운 변화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22) 본고에서 제시하는 어원 중에는 부분적으로 학자 간에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고의 예는 한자어의 어원 의식이 떨어져 한자어라는 생각을 잃게 되는 예를 보이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열어짐을 알 수 있다.²³⁾

· **긴가민가** : 긴가민가는 ‘기(其)인가 미(未)인가’에서 온 말로 보인다.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의 의미로서 ‘기(其), 미(未)’의 의미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원의식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²⁴⁾

· **겨누다** : ‘겨누다’는 ‘견(見)우다’로 볼 수 있다. 겨누는 행위가 눈으로 보는 행위이므로 ‘見’과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단, 접사 ‘-우-’가 붙는 형태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견주다** : ‘견주다’는 ‘어깨를 견(肩)주다’에서 볼 수 있듯이 ‘어깨’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동의 중첩으로 볼 수 있다. 단, ‘견 + 주다’의 구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견디다’의 경우도 ‘견(肩)’과 관련된 어휘라고 할 수 있다. ‘견(肩)’의 의미를 ‘어깨, 견디다’로 해석하는 것은 견디다와 견의 관련성을 높여주는 근거라 할 수 있다.

· **잠기다** : 잠기다의 경우에는 ‘잠(潛)’과 관련되는 어휘라고 할 수 있다. 의미가 명확하게 공통된다는 특징이 있다. 단, 앞의 ‘겨누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접사 ‘-가-’가 결합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²⁵⁾

· **신나다** : ‘신나다’는 ‘신(神)이 나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비슷한 의미로 ‘신명(神明)이 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신(神)’의 의미를 추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 **악을 쓰다** : ‘악’은 ‘齷’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악(齷)을 쓰다. 악을 ‘아가리, 악다구니, 아구’ 등과 연결시켜 볼 수도 있다. ‘악’은 악착같다는 의미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 **제법** : 제법은 ‘법(法)’과 관련이 있는 어휘라고 볼 수 있다. 부사화한 어휘라고 할 수 있다. 부사화한 어휘로는 ‘전혀’가 있다. 전혀는 ‘완전히’라는 의미인데, 현대어에서는 부정 표현과만 호응한다. 사용 범위가 좁아지고, ‘전(全)’을 독립적으로 쓰는 경우가 없다는 점이 ‘전혀’를 귀화어로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전혀’의 ‘전’에 대한 어원 의식이 적어진 것이다.

23) ‘괴롭다’의 한자어 어원을 인지하는 언중들은 ‘고롭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24) ‘긴가민가’는 심사의원의 지적대로 ‘其然未然(기연미연)’으로 보는 입장들도 있다. 단, 언중들은 ‘기’와 ‘미’만을 한자어로 인식하여 귀화어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5) ‘잠잠하다’의 경우는 ‘잠[眠]’과 ‘潛[潛]’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에 잠기다’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潛과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고, ‘잠자코’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잠’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 **귀찮다** : ‘귀찮다’의 경우는 ‘귀하지 않다’가 줄어든 말이다. 따라서 ‘귀’는 ‘貴’라고 할 수 있다. 즉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귀찮다’이다. 그런데 귀찮다가 부정 표현으로만 쓰인다는 점²⁶⁾과 귀하다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귀화어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후(厚)하다 / 박(薄)하다** : ‘하다’ 동사 앞에 있는 1음절의 한자어는 어원 의식이 희박하다.²⁷⁾ 1음절의 한자어의 경우는 완전한 자립어간이 되기도 하고 어근이 되기도 하는데, 어근으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어원 의식이 희박해지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선과 악의 경우는 자립어간과 어근으로 모두 쓰여 한자어라는 의식이 분명하지만, ‘후하다, 박하다, 죽하다, 피하다’의 경우는 한자어라는 의식이 언중 사이에서 약해지게 되는 것이다.

4. 맺음말

한자는 어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외래적인 요소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말 어휘 형성에 관여되어 왔다. 단순히 한자어로서만이 아니라 한자어와 우리말의 복합에도 관계되어 왔으며, 기초어휘에 이르기까지 우리말을 대체하여 사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의존명사로도 사용되어 문법화하기도 하였다. 이는 한자어가 우리말로 된 증거들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자어가 우리말화한 귀화어의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귀화의 형성 원리로는 크게 우리말 어휘와의 복합, 동의중첩, 문법화, 음운 및 형태의 변화, 어원 의식의 결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말과의 복합을 통해 한자어라는 의식이 적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우리말 어휘와 같은 뜻의 한자어 결합을 통해 한자어라는 의식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 두 가지는 복합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문법화는 의미와 기능의 변화를 수반한다. 따라서 본 의미와의 관련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한자어는 우리말에서 의존명사화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때 귀화어가 되는 것이다. 음운이 변화하거나 형태가 변화하는 경우에도 어원적으로 동일한 것임을 알기 어려우므로 귀화어가 된다. 이밖에도 어원 의식이 사라지게 된 어휘들도 있다. 어원 의식이 사라졌다는 말의 의미가 곧 귀화어가 되었다는 의미라고 할 수도 있다.

한자어계 귀화어를 통해서 볼 때, 우리말 속에서 한자어의 영향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한자어가 전체 어휘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이 밖에 한자어라는 어원 의식이 사라져 우리말로 인식하고 있는 어휘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예로 제시한 어휘 중에는 어원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들도 있다. 귀화어의 전체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기는 했지만, 보다 세밀한 어원 재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향후 개별적인 어휘 차원에서 우리말 속의 한자 유래 귀화어들에 대한 연구들을 계속 하고자 한다.

26) ‘귀찮지 않다’가 ‘귀하다’는 의미가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27) 심제기(1987:31)에서는 1음절로 되어있는 한자 어간형이 많음을 설명하고 있다.

귀화어를 응용국어학의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이나 일본 등 한자어 권에서 온 학습자들에게 대한 어휘교육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귀화어는 한국어 어휘와 학습자의 모국어 어휘를 관련 맺는 핵심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향후 귀화어를 한국어 어휘교육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접근이 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강현규. 1988. 『한국어 어원연구사』. 집문당.
- 김종택. 1993. 『국어어휘론』. 탑출판사. pp.81-88
- 남풍현. 1972. "중세국어의 중국어 차용연구". 『한양대 논문집』 6.
- 류구상. 1970. "동의중첩어의 구조". 『어문논총』 17, 고려대학교.
- 박은용. 1970. "중국어의 한국어에 미친 영향". 『효성여대 논문집』.
- 박재양. 2006. "추녀와 처마의 어원". 『인문과학』 제38집.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서정범. 1989. 『우리말의 뿌리』. 고려원.
- 성환갑. 1987. "고유어의 한자화 과정". 『국어생활』 8, pp.41-49. 국어연구소.
- 심재기. 1987. "한자의 구조와 그 조어력". 『국어생활』 8, p.31. 국어연구소.
- 심재기. 1994. "숨어있던 복합어에 대하여". 우리말 연구의 샘터, 연산 도수희 선생 화갑기념논집.
- 안주호. 1996. "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현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 이광정. 2003. "고유어와 한자어의 어휘적 특징". 『국어문법 연구』. 역락.
- 이덕호. 1980. "언어 차용에 관한 연구". 『한글』 169, p.255.
- 이용주. 1969. "한국어 어휘체계의 특징". 『국어교육』 15,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조세용. 1985. "한자어의 개주, 귀화 현상에 대한 연구 서설(2)". 『어문논집』 24.
- 조세용. 1986. "한자어에서 개주된 귀화어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 조세용. 1991. "한자어계 귀화어 중 사어화된 어휘에 관한 연구". 『논문집』 제10집, p.46.
- 조세용. 1999. "한자어계 차용어의 개주, 귀화 현상에 관한 연구". 『한글학회』 243.
- 조현용. 1994. "국어 비통사적 합성어의 통시적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 조현용. 1996. "동의중첩에 의한 단어형성 연구". 『어문연구』 9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조현용. 2005. "문법화와 한국어 문형 교육 연구". 『교육발전연구』 제21권 1호, 경희대학교 교육발전연구원.
- 진태하. 1978. "고유어화 된 한어 접미사". 『언어학』 3집.
- 최범훈. 1973. "국어의 한자계 귀화어에 대하여". 양주동 박사 고회기념 논문집.
- 최창렬. 1985. "한자 귀화어의 어원적 의미". 『어학』 제12집, 전북대 어학연구소.

조현용

130-701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209호
E-mail: iiejhy@khu.ac.kr

접수일자: 2009. 07. 27

수정일자: 2009. 08. 14

게재일자: 2009. 08. 27